

CBNU

제13회 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 UCC 경진대회 기본계획



2020. 10.

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
국민생활안전연구센터

전국지역사회 위기관리 경진대회 기본계획

1 목표 및 필요성

- 급변하는 국가 위기관리 환경변화와 국민의 안전 욕구 증대에 따른 공공 부분 및 민간 부분의 전문인력 수요가 증가해 관련 산업 육성의 필요성이 부상하고 있음
- 최근 코로나 19 유행, 수해, 대형 화재, 태풍피해, 지진, 원전사고 등으로 전 국민의 안전역량 향상이 국가적 사명으로 인식되고 있음
-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국가위기관리 및 생활안전연구에 대한 관심을 발전시키고 위기관리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함
- 지역민들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여 지역민의 생활 속 위기관리에 대한 비판의식을 제고하며 도로, 환경, 시설, 먹거리 등 지역 내 생활 속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2 경진대회 계획

- 공동주최 : (사)이재민사랑본부,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,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,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
- 공동주관 : 충북대학교, 충북대학교 LINC+사업단,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국민생활안전연구센터,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전문화위원회, 녹색청주협의회,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재난안전연구소
- 후원 : 4.16 재단, 사회복지공동모금회, 한국연구재단

- 참가자격 : 위기관리 및 생활안전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, 초·중·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등(5명 내외의 팀 구성 권장)
- 공모주제 : 재난 및 일상생활의 안전사례, 경험, 추모, 캠페인 등 안전 관련 UCC, 사례 영상 등 영상 콘테스트 형식
- 공모내용 : 안전사례와 관련된 플래시몹, 제작영상 등
- 접수기간 : 2020년 8월 3일 (월) ~ 2020년 10월 23일 (금)
- 접수방법 : 참가신청서와 영상을 이메일로 제출
접수는 10월 23일 23시 59분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며 제출 후 반드시 문자로 연락하여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것
이메일 : lcdv119@hanmail.net
문의 및 확인 연락 : 010-9487-2197
- 심사기준 : 5개 지표 X 20점 = 100점
 - 기획력 : 주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적합성
 - 독창성 : 작품의 창의성
 - 완성도 :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
 - 작품성 : 자연스러운 구성인지, 주제를 짜임새 있게 다루었는지
 - 설득력 : 주제에 대해 공감하게 하는지
- 시상일시 : 2020년 11월 6일 (금) 14:00 ~ 18:00
- 시상방법 : 화상회의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비대면 시상
- 시상내역
 - 대상 : 충북대학교 총장상
1팀, 상장 및 80만원 상당의 부상
 - 최우수상 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상

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상
2팀, 상장 및 각 50만원 상당의 부상

- 우수상 :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
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장상
2팀, 상장 및 각 40만원 상당의 부상

- 장려상 : 녹색청주협의회장
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소장상
4팀, 상장 및 각 20만원 상당의 부상

※ 시상팀 수와 부상은 해당 규모 내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부상으로
문화상품권 지급 예정

□ 세부일정

시 간	주 요 내 용
14:00~14:20	개회식
14:20~15:20	위기관리 전문가 초청 강연
15:40~16:00	휴식
16:00~17:30	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
17:30~18:00	기념촬영 및 폐회

□ 홍보방안

-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게재
-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홈페이지 게재
- TAS를 통한 관계자에 대한 전체 이메일 발송
- 주최·주관 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(홈페이지·SNS)
- 전국 초·중·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공문 발송
- 공모전 사이트에 등록

3

기대효과

- 국내에 위기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 위기관리 선진화와 안전문화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일조
- 일상 속의 생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안전역량을 기르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의식교육에 기여
- 향후 지역민을 포함한 일반 국민, 특히 중·고등학생 및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국민적 위기관리 선진화 및 안전문화 정착을 지원하는 가교 역할